



어르신들 ‘탄로가’에 취하다

<歎老歌>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인과 함께 하는 우리문화기행’... 매달 진행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사로 막고 오는 백발(白髮)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세월의 빠름과 늙음을 한탄한 역동 우탁(1262~1342) 선생의 ‘탄로가’가 새겨진 비석 앞에 어르신들이 섰다. 바로 옆에는 단양팔경의 제8경 사인암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탁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고향에서 감찰규정 등의 벼슬을 했다.

어르신들은 시조가 있는 비석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고, 주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어르신들은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 아래로 불쭉기가 흐르는 사인암의 절경보다는 탄로가에 더 취한 듯 보였다.

기념촬영을 할 때 김경선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웃으세요”라는 말에 어르신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한 어르신은 “어렸을 때 웃고 떠드는 것은 경망스러운 것이라고 배웠다. 이제는 정말 좋은데도 웃으려고 하면 찡그려진다”며 웃기 힘들게 대해 설명했다.

6월 24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가 주최한 ‘시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기행’의 마지막 코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매달 한 차례씩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달 문화기행 코스는 단양팔경이었다. 70대부터 95세의 어르신까지 29명이 참가했다. 김경식 시인이 안내했다. 김 시인은 명승지를 지날 때마다 그 장소에 얽힌 설화,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탄로가를 읊미하던 조홍삼 할아버지는 “오늘 우리문화기행에서 만난 하나하나가 새롭다”며 “전쟁과 가난을 겪다보니 젊은 시절 눈만 뜨면 일터로 나갔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았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서울근교를 벗어났죠. 멋있는데 좋은데 구경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지만, 이제 다리가 말을 안 들으니... 여기 와서 보니 정말 나뭇잎 하나, 저렇게 생긴 바위(사인암)도 새롭고 신기합니다. 다 늙어서 그 맛



늙음을 한탄한 우탁(兩倬) 선생의 ‘탄로가’가 새겨진 시조비 앞에서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이 6월 24일 충북 단양으로 ‘시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기행’을 떠났다. 어르신들의 뒤로 보이는 절경은 단양팔경(丹陽八景)의 하나인 사인암이다. 사인암은 덕철산 줄기에 강변을 따라 치솟아 있는데, 우탁 선생이 충북 단양에서 벼슬(사인재관: 善人在官)을 할 때 이곳에서 자주 휴양한 데서 사인암이라 이름 붙여졌다.

을 알았어요.”

어르신 기행단은 이날 아침 서울을 출발해 오전 11시 충북 단양의 도담삼봉에 도착했다.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정도전 선생의 삶터이자 단양팔경의 제1경인 도담삼봉. 어르신들은 남한강 가운데 서 있는 세계의 봉우리와 그 사이에 자리한 정자를 바라보며 시인의 설명을 경청했다.

‘시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기행’의 일정은 도담삼봉을 시작으로 고수동굴(천연기념물 256호)을 거쳐 신동문(1927~1993) 시인의 문학비가 세워져있는 소금정공원을 방문하는 순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암에서 우탁의 시조비를 만난 것이다.

다음 달 기행지는 경기도 파주이며, 8월 충남 서천, 9월 경남 함양, 10월 경북 안동, 11월 제주도다. 참가비는 2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문화복지팀(02-739-9501)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풍수지리교실, 시사교양강좌, 영화 상영, 노인 일자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낙산사 의상대 복원 2009년 12월 불교위원회로 해체보수 공사에 들어간 양양 낙산사 의상대가 옛 모습대로 복원됐다. 양양 낙산사(주지 무은)는 6월 22일 ‘낙산사 의상대 단청보수 및 의상대-홍련암간 정비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당초 낙산사는 의상대 정비공사로 의상대 단청을 세로이 하고 기둥 일부만을 교체하려 했으나 주변 석축붕괴와 해풍으로 인한 기둥 훼손 정도가 심해 4억6000만원을 들여 해체 후 복원공사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복원공사에서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축대돌이 제거되고 자연석으로 교체됐다. 한편, 신라 문무왕 11년(671)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 스님이 좌선하던 곳에 세운 정자로 알려진 의상대는 1925년 만홍 스님이 새로 지었으며 1936년 폭풍우에 무너졌다가 1년 만에 복원된 바 있다. 1974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48호로 지정된 의상대는 1995년에도 해체복원공사를 진행했었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낙산사

“수경 스님 돌아오세요”

조계종 총무원, 21일 ‘짐 나누어지겠습니다’ 성명 발표

조계종 총무원이 승적을 반납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수경 스님에게 돌아와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6월 21일 ‘수경 스님이 지셨던 생명살림의 집을 나누어지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담 스님은 성명서에서 “스님의 생명살림 호소와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전회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생명살림의 화엄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경 스님이 꼭

요하다. 다시 돌아오셔서 보살행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담 스님은 “문수 스님 추모사업과 그 뜻을 선양하기 위해 종단은 정성을 다해 ‘4대강 생명살림 불교단체’ 등 단체 및 문도와 함께 해 나가겠다. 추모법회, 심포지엄, 국민추모제 등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종단 차원에서 수경 스님 행적을 수습하고 있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재가 밝혀지면 직접 찾아 읽고 간곡한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명서에서 “스님의 생명살림 호소와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전회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집행부가 NGO단체 및 종단 내 진보성향 종도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 NGO단체에 대한 종단의 제도적인 지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경 스님은 14일 종단이 문수 스님 추모제를 축소 봉행한 것 등을 이유로 승적 등을 반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종섭 기자

문수 스님의 생명살림 유훈 잇는다

추모위 24일 추모사업 계획 발표...17일 국민추모 문화제

‘4대강 사업 반대’와 ‘부패척결’, ‘이웃에 대한 자비 실천’의 유지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전국민적인 문화행사가 7월 17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봉행된다.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혜경·지관, 이하 추모위)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수 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등을 내용으로 한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추모위가 밝힌 문수 스님 추모사업 계획에 따르면 조계종 차원에서 △국민추모문화제 △전국 동시 분발사 추모법회(7월 12일 오전 11시) △문수 스님 추모자료집 배포 △문수 스님 49재 봉행(7월 18일 오전 11시 조계사)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 심포지엄(8월 중 예정) 등이 개최된다.

국민추모문화제에서는 문수 스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돌아보는 추모영상 상영, 중앙총회 의장 보선 스님의 여는 말씀, 화엄·동환 스님의 회심곡, 신경림 시인의 추모시 낭송, 도법 스님, 소

설가 조정래씨, 이웃종교인의 추모말씀, 4대강 개발 중단과 생명살림 실천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 등이 있을 예정이다.

공동집행위원장 지관 스님은 “국민추모문화제는 불자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스님이 단행한 소신공양의 의미와 남긴 뜻과 의지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동집행위원장 혜경 스님은 “추모문화제는 스님의 의로운 결단을 되새기며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잊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지난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참회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문수 스님이 남긴 가장 큰 뜻인 ‘생명살림’의 원력을 세워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동시 분발사 추모법회는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문수 스님의 행장 및 유언을 되새기고, 소신공양의 의미를 살피는 내용으로 봉행된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에서는 사찰 입구에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수 스님 분향소를 마련키로 했다.

추모법회를 돕기 위해 추모위

는 <추모자료집>을 1100여 사람에게 배포키로 했다.

<추모자료집>에는 문수 스님 행장과 소신공양에 대한 의미, 각계 애도문, 문수 스님 추모활동 일정 등이 담겨 있다.

문수 스님 49재에서는 조계종 법제위원회의 법제추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법어, 도반대표 등의 추모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문수 스님 추모 심포지엄은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의미’를 주제로 중앙승가대와 중앙승가대 총동원회 주관으로 8월 중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소신공양의 불교적·사회적·실천적 의미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공동집행위원장 혜경 스님은 “문수 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유서가 아닌 깨달은 수행자가 남긴 유훈”이라며 “문수 스님 추모사업을 통해 스님의 소신공양 정신이 불교계 인구에 울리게 자리잡게 하고, 또 깨달음을 어떻게 사회에 회향할지에 대한 의제를 풀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종섭 기자

▶14 선지식-달라이 라마 ▶9 현장-불청대회 ▶11 통일-평화재단 심포지엄 ▶19 특집-장보고

오직 수행의 길을 찾아 수녀(修女)에서 비구니로,
40년의 세월을 보낸 세계적인 석학,
일아 스님의 투철한 삶 이야기!!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편자 일아 스님!
나의 삶, 나의 수행, 나의 학문

일아 스님은 서울여자대학교를 졸업, 서울 명동 샬트르성바로수녀원에 입회, 가톨릭 신학원을 졸업, 계성여자대학교사도 제직 중 수녀원을 탈퇴, 조계종 비구니신인 석남사 법회스님을 은사스님으로 출가, 운문승가대학을 졸업, 태국 위백아승 위빠사나 명상수도원과 미얀마 마하시 위빠사나 명상센터에서 2년간 수행, 미국 New York Stony Brook 주립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 University of the West 비교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LA Lomera 불교대학 교수, LA 갈릴리 신학대학원 불교학 강사를 지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법정 스님과 석남사 인홍 스님! 무슨 시연으로 출가 하셨어요?
마이를 책스의 죽음! 오마마 대령과 함께 맥주!

깨달음을 찾는 여 세 이

인연입니다

모두다

우리

일아 지음 | 국판 변형 | 356쪽 | 값 12,000원

민족사 | 서울서 중로구 주공동 58번지 두산위브빌딩 1131호 | 전화 02-732-2403-4 | 이메일 minjoksa@chol.com